

패션&스타일

'월드컵 패션' 코디법

튀고 싶다면 레드 티셔츠에 태극기 색상 매치  
부담 된다면 스카프·액세서리로 포인트 연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선보인 월드컵 16강 기원 먹거리. /연합뉴스

외식업계 '아식 월드컵' 후끈

'축구공 도넛' '파이팅 세트'...  
온라인몰 24시간 배달 경쟁

외식업계는 월드컵 전용 메뉴를 선보이고 온라인몰에서는 아식 배달까지 내서는 등 월드컵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유통업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외식 업체는 월드컵 전용 메뉴를 선보이며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시차 문제로 심야 경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영양이 풍부한 심야 메뉴로 내세웠다. 또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에서 매콤한 먹을거리부터, 월드컵 한정 판매 메뉴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피쉬&그릴은 한국인의 매운맛을 콘셉트로 통마늘과 고추를 사용해 8종류의 메뉴를 선보였다. 여성들을 위해 콜라겐이 풍부한 죽발을 아재와 버무린 '소시지&고구마샐러드', 타우린이 풍부한 오징어와 데리야끼 소스로 볶은 삼겹살 위에 치즈를 곁들인 '오삼치즈 데리야끼구이' 등이 대표적이다.

패밀리 레스토랑 밥스의 경우 '스테이크 워드 코코넛 슈림프'와 '얇스톤 안심 & 슈림프 투툽 스테이크'를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코리아파이팅 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축구 응원으로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데 안성맞춤이다.

버거킹은 매콤함과 달콤한 맛을 지닌 스파이스 BBQ 소스를 넣어 매운맛을 살린 '스파이스 BBQ 버거'를 선보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맵기로 유명한 멕시코 칠리고추 '하바네로'를 넣은 '앵그리와퍼 주니어'도 내놓았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축구공 도넛'을 한정 판매한다. 이 메뉴는 도넛 위에 초콜릿과 슈가파우더로 축구공 모양을 형상화해 태극전사들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온라인몰들은 '아식 경쟁'에 나선다. 밤 늦은 경기시간대를 고려해 피자, 치킨 등 배달음식이나 간편 조리식 등 다양한 응원 먹을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마켓은 월드컵이 열리는 7월 10일까지 멕시코나와 제휴해 '월드컵세트'를 판매한다.

'멕시코 월드컵세트1'은 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 각각 1마리와 1.25L 콜라 세트로 13% 할인된 2만6500원에 판매한다.

/이음미디어 emlee@kwangju.co.kr

남아공월드컵이 개막하면서 거리에서는 레드 돌풍이 불고 있다. 남아공월드컵을 겨냥해 각 브랜드들이 티셔츠부터 신발, 액세서리 등 붉은색을 테마로 다양한 레드패션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즐기지 않던 레드아이템을 월드컵을 핑계삼아 입어봐도 좋을 때다.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레드 아이템은 선택 다가가서 부담스럽다. 색상 자체가 강렬해 자칫 잘못입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색깔과 스타일에 맞게 레드 색상을 적절히 매치한다면 월드컵 분위기를 타고 올 여름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른 레드도 패션 센스를 발휘할 수 있다.

◇레드패션과 가장 어울리는 아이템은 핫팬츠=레드 패션과 함께 월드컵을 앞두고 뜨는 아이템이 바로 핫팬츠다.

핫팬츠는 소녀시대, 티아라, 카라, 2NE1, 포미닛, 에프터스쿨 등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즐겨 입어 이미 유행이 된 아이템으로 발랄함과 동시에 색시함을 강조할 수 있어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붉은 색 스니커즈, 샌들, 귀걸이, 시계 등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금상첨화다.

이밖에 허리 부분에 벨트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붉은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원피스나 붉은색 가디건도 여성들의 월드컵 응원패

빨강 계통 일색은 금물

블랙컬러 매치 때 세련

선으로 안성맞춤이다.

◇붉은색 티셔츠 한 장으로 아쉽다면 태극기를 모티브로=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의상을 선택하는 것도 좋다. 붉은색은 기본색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태극기의 기본 색상인 화이트, 블루, 블랙을 의상 속에 매치해도 좋다.

꼭 응원용 티셔츠가 아니더라도 태극기의 두세가지 색상이 발랄하게 배합된 스트라이프 프린트 티셔츠를 선택해도 된다. 또 상의는 무난하게 화이트 컬러를 선택하고 하의를 강렬한 레드로 선택하는 것도 좋다.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세련된 트레이닝복으로 컬러감만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붉은색이 부담스럽다면 액세서리로 포인트를=레드 컬러 스타일링 초반인 경우 액세서리를 활용해 포인트 아이템으로 연출하

는 것도 센스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축구공 모양의 귀걸이나 빨강 뺨글은 맛있는 의상에 포인트가 되면서도 월드컵 분위기를 낼 수 있다.

레드 스카프 또는 레드 브로치 같은 아이템으로 의상에 포인트를 주어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하면 훨씬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다. 또는 가방 손잡이 부분에 레드 컬러 스카프를 묶어주면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 할 수 있다.

스포츠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붉은색 계열의 선캡이나 축구선수 처럼 사커셔츠를 화이트, 레드 컬러로 매치하는 것도 월드컵 패션 소품으로 손색없다.

◇월드컵 패션, 이것만은 피하지=월드컵을 계기로 평소 입지 못했던 붉은색의 패션 아이템을 과감하게 시도해보기로 했다면 모든 아이템을 빨간색과 태극 문양으로 통일하는 것은 금물. 1~2가지 아이템만 사용해 멋을 내는 것이 좋다.

레드 컬러 옷은 색 자체만으로도 튀므로 단순한 디자인을 선택해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또 블랙컬러와 매치할 경우 튀는 레드 컬러를 진정시켜 한층 세련되고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레드와 어울리는 색깔을 알고 색깔 코디를 하거나 그 외에 화이트, 블루, 그린, 옐로 등 출전국들의 컬러를 매치하는 것도 세련된 월드컵 패션의 한 방법이다. /이음미디어 em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HINIL car wax. Features a large image of a red wax bottle, promotional text in Korean, and a grid of small images showing people using the product. Text includes '47년 전통의 신일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and '99,000원 39,800원'.